



13억 경제가 된다

통일 2002-2-8

<7> 개방의 그늘 빈부격차

북경 등 대도시 1만달러
서민 600달러

‘역대 어느 왕조도 인민을 배불리 먹이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지만,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최고의 찬사다.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노선에 반기를 들었던 보수세력도 이 대목에는 토를 달지 않는다. 하지만 개혁·개방은 ‘평등’ 이념의 공산사회에 빈부격차를 몰고 왔다. 빈부격차는 기술과 자본이 빈약했던 중국에서 연안도시의 공업발전을 위해 조장된 측면이 강하다. 불균형 성장론의 중국판이 바로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 그러나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인 소외세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체제와 사회 안정을 해치고 있다.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13억 중국인 중 외제브랜드를 좇는 최상층은 8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문화생활을 즐기는 부유층은 그 열배인 8000만명. 도시인구 3억7000만~4억6000만명의 60% 정도를 중산층으로 보면 약 2억5000만명이다. 여기까지가 중국에서 여유있는 생활을 한다는 샤오강(小康)단계의 인민으로 외국기업의 주된 마케팅 대상이다. 농촌인구는 8억명. 이중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 5억5000만명으로 이들은 먹고 입는 것이 해결된 원바오(溫保)단계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매달리는 극빈층은 9000만명으로 추정된다. 도시 부유층과 중산층, 농촌 서민층 등 세 소득계층의 삶을 통해 중국의 빈부격차를 알아본다.

개혁·개방이후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추이

단위:달러



자료:중국통계연감 2001년판